서(書)로이음

학교도서관협의회 서평집

서書로이음

서書로이음

펴 낸 날/ 초판1쇄 2021년 1월 31일
펴 낸 곳/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주　　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11길 46
홈페이지/ http://ksla.net/default/
문　　의/ ksla1@hanmail.net
편　　집/ 책마을해리

ⓒ학교도서관협의회, 2021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Korea School Library Association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알려주는 사전이 있다면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그 질문을 알면 다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TV 프로그램 〈유퀴즈 온더 블럭〉에 출연한 정세랑 작가의 대답을 듣고 곰곰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지내온 일 년 동안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앞으로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변화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마침표가 맺어지지 않는 수많은 질문만이 가득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을 만날 때 우리는 책을 펼칩니다. 책을 펼쳐 읽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이음〉 창간호에서는 지속가능한 모두의 삶을 위하여 환경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기치 아래 환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41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사서교사 이름으로 모여 함께 내는 이 첫 서평집이 질문들과 해답과, 너와 나와 우리와, 식물과 동물과, 세상과 지구를 이어주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김담희 학교도서관협의회 출판국장, 전주우림중 사서교사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학교도서관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이 시기에 우리 사서교사들이 만든 서평집이 출판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도서관 5대 법칙(Books are for use, Books are for all, every book it's reader, save the time of readers, The library is growing organization)을 주창한 인도의 수학자이자 사서인 랑가나단이 2020년에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로 근무한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북큐레이션을 제일 중요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사방에 많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생수 이듯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서평집은 학교도서관의 독자들(어린이 독자, 청소년 독자, 교사 독자,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꼭 필요한 자료의 안내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서교사들의 객관적이고 교육적이며 애정이 담긴 해석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우리 학교도서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덕성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대표회장(문학박사, 서울영상고 사서교사)

004 펴내는 글

006 축하 글

초등

011 돌고도는 플라스틱 쓰레기 — **구은아** 인천 용학초등학교

012 우리의 소중한 작은 섬, 지구 — **구혜진** 전남 매안초등학교

013 껌은 5년, 비닐봉지는 450년 — **김재민** 강원 원주 반곡초등학교

014 쓰레기문제, 이렇게 해결해요 — **김하늘** 전북 군산신흥초등학교

015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법 — **노훈금** 경기 남양주다산초등학교

016 미세먼지로 벽돌을 만들다 — **박순혜** 서울 신용산초등학교

017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 **박차연** 경기 시흥 웃터골초등학교

018 내일을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 — **반수정** 인천계양초등학교

019 쓰레기의 일생 — **안선영** 인천한빛초등학교

020 동물 이웃과 잘 지내는 미래를 꿈꾸며 — **이규언** 경북 문덕초등학교

021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손쉬운 방법 — **이은주** 서울 신정초등학교

022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은 어디로? — **정다애** 인천굴포초등학교

023 유리와 넬리의 비치코밍 이야기 — **정민재** 대구 새론초등학교

024 백년 뒤 사람들은 누구와 살까? — **정재연** 경기 가평초등학교

중등

025 지구 생태 초과의 날 — **고을레라** 제주 노형중학교

026 우리는 무엇을 하고, 혹은 하지 않을 수 있는지 — **김담희** 전북 전주우림중학교

027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 **김소영** 강원 평창중학교

028 동물복지란 무엇인가 — **김주애** 대전 은어송중학교

030 소중하고 값진 것을 지키려면 — **김진경** 대구 학남중학교

031 단 하나뿐인 지구를 위하여 — **박보경** 경기 안산부곡중학교

033 우리는 모두 지구별 여행자 — **박인혜** 충북 청주중앙중학교

034 제로 플라스틱, 제로 웨이스트 — **박진아**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035 당신도 쓰레기제로 라이프를 살 수 있습니다 — **소아름** 전북 서전주중학교

036 친절한 비거니즘 입문서 — **이미림** 전북 전주서중학교

038 우리 아이가 지구의 마지막 아이가 되지 않도록 — **전수익** 경기 안성 만정중학교

039 우리의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정지원** 대구 왕선중학교

040 생태계의 또 다른 한 축, 야생동물 — **하모란** 충남 태안중학교

041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 **허민영** 전북 남원용성중학교

고등

042 인간만의 편리를 위해 쌓아올린 인류의 삶 — **김경리** 제주 한림고등학교

043 기후위기, 우리 모두의 책임 — **김경리** 제주 한림고등학교

045 기후변화가 뭐니? — **김미니** 강원 설악고등학교

046 정글, 그 낭만과 잔인함 — **김민정** 서울 광남고등학교

047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 **김현주** 전남 광양고등학교

048 환경을 지키는 그린멘토 이야기 — **류금희** 서울 구일고등학교

049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히는 일상 속 방법 — **배고은** 전남 순천복성고등학교

050 환경문제, 과학을 통해 해결하자 — **송혜연** 서울 신도고등학교

051 통계와 사례를 통해 직면하는 환경 변화 — **오동은** 서울 청량고등학교

052 환경문제, 나를 둘러싼 현재의 일 — **이수현** 경기 광명북고등학교

053 기후에 투표하라 — **정한영** 전북외국어고등학교

054 환경에 영향주지 않고 살아남기 — **최예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055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 — **최은주** 경기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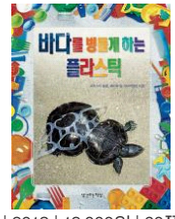
056 학도협 창간호 환경 주제 추천 도서목록

058 나만의 목록 만들기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성인

돌고도는 플라스틱 쓰레기

— 구은아 인천 용학초등학교



바다를 병들게 하는 플라스틱 | 시르시티 블롬, 예이르 빙 가브리엘센 글 | 생각하는 책상 | 2018 | 13,000원 | 60쪽

마시다 말고 버린 페트병, 플라스틱 빨대, 낚싯줄 등은 인간에게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물건이지만 바닷속 생물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보여주는 책이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디서 오는지, 바다 생물들에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떤 식으로 위협이 되는지, 플라스틱 쓰레기가 썩어 없어지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북방 풀머 갈매기의 생태를 시작으로 책에 쉽게 풀어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 돌고 돌아 결국은 인간에게로 돌아온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비닐장갑 등 일회용품의 사용이 많이 늘어났다. 안전을 위해 사용한 물건들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일회용 쓰레기가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는 이 시기에, 플라스틱 물건들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때이다.

#플라스틱 #북방 풀머 갈매기 #일회용품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6과05-03]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함께 볼 만한 콘텐츠

유튜브 〈내가 버린 빨대가 바다거북이 코에 박힐 확률은?〉. 환경부. 2019. (4:47)

유튜브 〈Sea Turtle with Straw up its Nostril - "NO" TO PLASTIC STRAWS〉. Sea Turtle Biologist. 2015. (8:03)

초1 | 초2 | 초3 | 초4 | 초5 | 초6 | 중1 | 중2 | 중3 | 고1 | 고2 | 고3 | 성인

우리의 소중한 작은 섬, 지구

— **구혜진** 전남 매안초등학교



반쪽 섬 | 이새미 글 | 소원나무 | 2019 | 15,000원 | 56쪽 | 그림책

맑은 물과 상쾌한 공기, 울창한 나무가 가득한 작은 섬. 다섯 형제는 이 섬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게 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섬을 마구 오염시키고, 쓰레기도 점점 늘어나 온통 쓰레기로 뒤덮이고 만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된 다섯 형제는 섬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섬 반쪽은 점점 깨끗해지기 시작한다.

반쪽 섬의 이야기는 우리의 소중한 '작은 섬' 지구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한순간에 쓰레기 섬으로 변한 작은 섬이, 가까운 미래에 마주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일깨운다.

국내·외 많은 환경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등 새로운 돌연변이 바이러스의 근본적인 원인이 환경오염에 있다고 얘기한다.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연 또한 언제 망가질지 모른다. 다섯 형제가 작은 섬을 되살리려고 정성을 쏟은 것처럼, 지구를 지키기 위한 우리 생활 속 실천 방법들을 찾아보면 어떨까.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환경오염 #쓰레기 #자연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3학년 도덕 6.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 3학년 도덕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2. 우리 모두를 위한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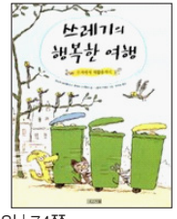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그림책 〈다시 초록 섬〉. 다니엘 몬테로 갤런 지음. 한울림어린이. 2019.
영화 〈월-E WALL-E〉. 앤드류 스탠튼 감독. 2008. (1:44:00)
유튜브 〈지식채널ⓔ 567 플라스틱 아일랜드〉. EBS. 2010. (3:49)

초1 | 초2 | 초3 | 초4 | 초5 | 초6 | 중1 | 중2 | 중3 | 고1 | 고2 | 고3 | 성인

껌은 5년, 비닐봉지는 450년

— **김재민** 강원 원주 반곡초등학교



쓰레기의 행복한 여행 | 제라르 베르톨리니, 클레르 드라랑드 글 | 사계절 | 2007 | 10,500원 | 74쪽

요즘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이 택배나 배달 음식을 많이 이용하여 일회용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난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심코 쓰레기통에 버린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지 궁금증에서 시작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쓰레기의 역사, 최초의 쓰레기통, 수거 방법, 재활용 혹은 재활용되지 못한 쓰레기의 뒷모습 등이 다양한 그림과 짤막한 글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 사람이 쓴 책이지만 옮긴이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일도 소개해준다. 여기서 나아가 깨끗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방법이나, 독서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서 독후활동도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다.

내가 함부로 씹다 버린 껌은 없어지려면 5년, 맛있게 과자를 먹고 버린 비닐봉지는 없어지려면 450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면 많은 쓰레기가 행복한 여행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5학년 실과(교학사). 3.자원 관리와 자립 | 5학년 실과(동아). 4.생활 속 자원 관리

함께 볼 만한 콘텐츠

다큐멘터리 영화 〈쓰레기의 꿈〉. 마이 이스칸더 감독. 2009. (79:00)
유튜브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_재활용, 그 화려한 변신〉. EBS. 2010. (42:00)
홈페이지 〈환경교육포털(https://keep.go.kr)〉. 환경부. 환경뉴스, 환경교육자료 탑재

쓰레기문제, 이렇게 해결해요

— **김하늘** 전북 군산신흥초등학교



쓰레기 대폭발: 쓰레기는 모두 어디로 갈까? | 클레이 이머 글 | 사파리 | 2020 | 13,000원 | 96쪽

이 책은 쓰레기의 역사, 종류, 과도하게 버리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례에 대하여 아이들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뒷면에 초등 6학년 교육과정과 연계된 활동이 있으니 아이들과 환경에 관련된 수업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본다. 다만, 내용 중 설명이 더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보였다. 특히 과대 포장과 관련한 부분은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쓰레기가 생겨서 좋지 않다고만 하니, 이 부분은 살짝 의문이 갔다.

그럼에도 이 책은 아이들에게 쓰레기 문제를 가르칠 때 참고하면 효과적인 책이라 생각한다. 특히,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다 보니 일회용품 사용이 늘었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수업을 한다면, 앞으로 지구가 오염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행성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한다. #쓰레기 #재활용 #환경오염 #음식물 쓰레기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6학년 도덕 6.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 6학년 사회 2.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3) 지속 가능한 지구촌

함께 볼 만한 콘텐츠

신문기사 〈코로나19 장기화에 넘쳐나는 폐플라스틱… 수거중단 위기〉. 연합뉴스TV

신문기사 〈[르포] 코로나로 플라스틱 산 이룬 재활용센터 "물량 처리 버거워"〉. 연합뉴스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법

— **노훈금** 경기 남양주다산초등학교



돌아와, 귀신고래야! | 신정민 글 | 정지윤 그림 | 파란자전거 | 2020 | 12,900원 | 162쪽

고래를 좋아했던 아이 장군이와 한국계 귀신고래 삐딱이의 이야기다. 장군이는 아버지가 고래잡이배를 타고 다니는 덕분에 살아가지만, 고래를 해체하는 장면을 보고 아버지에게 고래잡이를 하러 가지 말라고 한다. 어미 고래를 잃고 다쳐서 끙끙거리는 새끼 고래를 돌봐주는 마음 여린 아이이다. 그 장군이가 자라서 고래잡이배를 타고, 그리고 삐딱이의 마지막을 함께한 내용에 마음이 아팠다. 사람과 고래가 함께 평화롭게 지내지 못한 이야기는 너무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다.

동해 앞바다에 고래가 많았던 시절이 있었다. 일본의 고래잡이배가 무수히 많은 고래를 잡아들여 지금은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수많은 고래가 사라져갔다는 것은 바다 생태계의 균형에도 좋지 않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생명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실천해야 한다.

#고래 #귀신고래 #멸종위기동물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6학년 과학 4. 다양한 생물의 영향, 생물다양성 | 4학년 도덕 4. 생명의 소중함, 자연보호, 생태계 보호

함께 볼 만한 콘텐츠

도서 〈귀신고래〉. 김일광 지음. 내인생의책. 2008

유튜브 〈귀신고래 1부 한국 귀신고래〉. Hello whale. 2018. (4:19)

유튜브 〈한반도 바다를 누비던 수많은 고래들, 모두 어디로 갔을까?〉. 목포MBC. 2019. (18:48)

미세먼지로 벽돌을 만들다

— **박순혜** 서울 신용산초등학교



코털인간 기운찬의 미세먼지 주의보 | 제성은 글 | 한호진 그림 | 크레용하우스 | 2018 | 11,000원 | 108쪽

미세먼지로 만든 벽돌이 있다?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15년 행위예술가 '브라더 너트(견과형제 堅果兄弟)'는 100일간 베이징의 대기 먼지를 모아 벽돌을 만들었다. 기운찬은 마스크도 없이 공을 차다가 돌풍을 만나, 모래와 먼지에 뒤덮인다. 그 후 코털이 자라나 당황하던 중 친구 옹골찬 역시 같은 일을 겪고 코털이 자랐음을 알게 된다.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습관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돌연변이 코털 인간으로 유명인이 된다. 코털이 유행하게 되고, 공장 가동률이 높아질까 걱정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대기오염을 가속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진정한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우리들의 문제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동화 형식으로 명쾌하고 유쾌하게 짚어냈다. 부록에는 등장인물들의 대화로 정보를 풀어내고, 퀴즈 문제로 즐거움까지 선사하는 환경 책이다. #미세먼지 #대기오염 #지구환경 마스크 #돌연변이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2학년 1학기 통합교과 (봄) 2. 봄이오면 | 3학년 도덕. 우리가 만드는 도덕수업 2.우리 모두를 위한 길 | 5학년 1학기 사회 2.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함께 볼 만한 콘텐츠

도서 〈미세먼지 해결사 슈퍼 피시〉. 오리안 랄망 지음. 모레애 푸아뇨네크 그림. 권지현 옮김. 2018
신문기사 〈대형 청소기로 베이징 미세먼지 100일 모아 벽돌 만든 괴짜 예술가〉. 중앙일보 2015.12.1.
유튜브 〈응급처치 프린세스- 미세먼지가 심해요 #2〉 지니키즈. 2019. (3:48)
유튜브 〈미세먼지 특보 없이 지나가는 올 3월 코로나19 때문일까?〉 YTN사이언스. 2020. (10:35)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 **박차연** 경기 시흥 웃터골초등학교



그레타 툰베리가 외쳐요! | 자넷 윈터 글 | 꿈꾸는섬 | 2020 | 13,500원 | 40쪽 | 그림책

스웨덴에서 시작된 한 여학생의 행동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소녀는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하고 기후 온난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운동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를 한다. 그 소녀의 이름은 '그레타 툰베리'이다. 그 결과 2019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고, 국제앰네스티 최고영예상인 '양심대사상', 노르망디에서 '올해의 자유상'을 수상했다. 우리는 학교에서 기후위기에 대해 배운다. 지구는 왜 더워지는지, 빙하가 얼마나 녹고 있는지 책과 영화, TV에서 심각성을 배우지만 그때만 심각할 뿐 쉽게 그 사실을 잊는다. 그러나 툰베리는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했다. 작가 자넷 윈터는 소녀의 절실한 호소에 감동하여 이 그림책을 만들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다. 미래를 바꾸는 행동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툰베리처럼 모두가 알면서 외면하는 환경 위기라는 진실을 마주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그레타 툰베리가 무엇을 외치고, 경고했는지 먼저 이 책을 통해 들어보는 게 어떨까? #그레타 툰베리 #기후위기 #환경운동 #빙하 #UN기후회의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5~6학년 사회 환경위기를 극복하는 방법(토론) | 5~6학년 과학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알아보기(정보검색) | 3~6학년 미술 환경오염 관련 포스터(표어) 만들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유튜브 〈'대안 노벨상' 받은 그레타 툰베리, 유엔 연설 풀버전〉. 중앙일보. 2019. (4:22)
도서 〈그레타 툰베리〉. 발렌티나 카메리니 지음. 주니어김영사. 2019
도서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 그레타 툰베리 지음. 책담. 2019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성인

내일을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

— **반수정** 인천계양초등학교



내일을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 | 시릴 디옹, 피에르 라비 글 | 한울림어린이 | 2018 | 15,000원 | 72쪽

도시에 사는 스물여덟 살의 영화감독 시릴과 예순열덟 살의 시골 출신 생태학자 피에르, 이 책의 공동 저자인 두 사람은 10년간 환경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그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했다. 2021년을 사는, 그저 남들 보기에 좋은 무언가를 차지하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는 당신과 나,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높이 더 많이'를 외치며 오직 정면만을 주시하는 모든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부족하더라도 그 사소하고도 귀중한 것들과 공존하는 단순한 삶은 어떠한가 이 책은 묻고 있다. '인간병'에 걸린 아픈 지구를 본 순간, 거기 '인간'에 해당하는 독자는 자못 뜨끔해진다. 시금털털한 기분을 어루만지다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할 때쯤, 나에게 책 속 활자가 제시하는 '내일을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은 과연 분명하고 또 현명하다. 시릴과 피에르 두 사람의 관심이 세대를 초월한 것처럼, '환경'은 지구에 사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울림으로 관통해야 한다. 내일을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 그 '작지만 확실한'에 계속 힘을 싣다 보면 내일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이다. #지구 #공존 #자연 #상생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6학년 도덕 6.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 6학년 사회 2.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3) 지속 가능한 지구촌

함께 볼 만한 콘텐츠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 〈내일Demain〉. 멜라니 로랑 감독. 2018. (2:00:00)

도서 〈내일, 새로운 세상이 온다〉. 시릴 디옹 지음. 권지현 옮김. 한울림. 2017. 22000원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성인

쓰레기의 일생

— **안선영** 인천한빛초등학교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다 | 게르다 라이트 글 | 위즈덤하우스 | 2019 | 14,000원 | 96쪽

사람의 생애를 표현하듯 쓰레기의 생애를 표현한 책이다. 누군가를 위한 제품으로 태어난 쓰레기가 누군가를 위한 물건이 되어 쓰이고 사용 기한이 끝나게 되면 쓰레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용 가치가 끝난 쓰레기들이 모여지는 장소를 쓰레기 투기 장소라 표현하며 그 장소는 가난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사실적으로 표현해준다. 그 부분을 통해 쓰레기 투기 장소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환경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물건을 구입하고 사용하고 버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나와 있다.

이 책에서는 재미있는 관점으로 쓰레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다.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쓰레기가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물건이 되기도 하고, 미래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물건이 되기도 한다. #쓰레기 #물건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5학년 실과(교학사). 3.자원 관리와 자립 | 5학년 실과(동아). 4.생활 속 자원 관리

함께 볼 만한 콘텐츠

유튜브 〈쓰레기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면〉. KBS다큐. 2020. (7:28)

유튜브 〈한 달 동안 버리는 쓰레기 120KG〉. KBS다큐. 2020. (8:24)

동물 이웃과 잘 지내는 미래를 꿈꾸며

— **이규언** 경북 문덕초등학교



동물도 권리가 있어요 | 권유경 글 | 김소희 그림 | 풀빛 | 2019 | 12,000원 | 116쪽

"코로나19로 잠잠해진 바다에 돌아와 신나게 헤엄치는 초 희귀 '핑크 돌고래' 가족"* 코로나19에 시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뉴스들 속에서 홍콩과 마카오에서 들려온 소식이 반갑다. 아니, 이상하다. 동물원에서나 보던 핑크 돌고래가 떼로 몰려오다니? 연구자들은 여행객들과 그들이 탄 보트가 바다에서 사라진 덕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사람이 없어져야 동물들이 살기 편하려나? 사람과 동물은 함께 잘 지낼 수는 없는 걸까? 그렇다면 굳이 동물을 보러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을 텐데. 〈동물도 권리가 있어요〉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건넨다.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입고, 쓰는 우리의 행동이 환경과 동물에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상세하게 알려준다. 그리고 동물과 공존하기 위해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소중히 대하자고 말한다. 우리의 일상을 조금만 바꾸어 아름다운 지구별에서 동물 이웃과 잘 지낼 수 있는 미래를 꿈꾼다. #동물권 #생명 존중 #생물다양성 #동물복지 #윤리적소비 #동물보호법

*〈코로나19로 잠잠해진 바다에 돌아와 신나게 헤엄치는 초 희귀 '핑크 돌고래' 가족〉. 원혜진. 인사이트. 2020.09.17. https://www.insight.co.kr/news/304211 참조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5학년 도덕 인성교육 | 4학년 도덕 4. 생명의 소중함, 자연보호, 생태계 보호

함께 볼 만한 콘텐츠

유튜브 〈동물보호 공익광고 캠페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0. (0:44) | 영화 〈마이펫의 이중생활1〉. 크리스 리노드 감독. 2016. (1:30:00) | 영화 〈파퍼씨네 펭귄들〉. 마크 워터스 감독. 2017. (1:35:00) | 영화 〈마이펫의 이중생활2〉. 크리스 리노드 감독. 2019. (1:25:00) | 포스트 〈애니멀 플래닛〉 https://animalplanet.co.kr/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손쉬운 방법

— **이은주** 서울 신정초등학교



이건 쓰레기가 아니에요 | 이사벨 토마스 글 | 알렉스 패터슨 그림 | 머스트비 | 2019 | 12,000원 | 208쪽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기발하고 쉬운 방법을 소개한 책이다.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 빨대가 거북이 입에 꽂히거나 펭귄의 위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끔찍하지 않은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 해 보는 게 어떨까? 그 예로 숙제를 제출하지 않기! 숙제를 '하지 않기'가 아니라 '제출하지 않기'다. 매년 생산되는 종이는 4억 톤이 넘는다. 그중에서 인쇄용 종이는 4분의 1! 이 종이를 만들기 위해 매년 40억 그루의 나무를 없앤다니 너무 놀랍지 않은가? 지구를 지키려면 앞으로 숙제는 이메일로 제출하자.

이 책에는 환경 어벤져스 되기, 급하게 화장실 물 내리지 않기, 반짝이 사용하지 않기, 못생긴 음식 먹기 등 무려 50가지 방법이 실려 있다. 각 방법에 대해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킬 수 있는 것, 영향을 미치는 정도, 비용 및 어려운 정도를 그림으로 나타낸 지구 계량기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쓰레기 #환경 #업사이클링 #순환경제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교육과정 성취기준(2015): [6과05-03]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캠페인 도구를 만들 수 있다.

함께 볼 만한 콘텐츠

도서 〈이 책은 지구를 시원하게 해 줘요〉. 이사벨 토마스 지음. 알렉스 패터슨 그림. 황성원 옮김. 머스트비. 2020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성인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은 어디로?



— **정다애** 인천굴포초등학교

플라스틱 섬 | 이명애 글 | 상출판사 | 2020 | 13,500원 | 40쪽 | 그림책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 수심 1만 898m에서 발견된 것은 뜬금없게도 바로 '비닐봉지'라고 한다.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버린 플라스틱들이 전 세계 바다로 흘러 들어가 있는 것이다. 태평양에는 남한 면적의 15배인 1조 8,000억 개로 형성된 쓰레기 섬이 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해류를 따라 떠돌다가 북태평양 환류 지역에 모여 거대한 섬을 만든 것이다.

작가는 바다에 사는 새를 화자로 하여 이러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어린이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 바다에 사는 다양한 동물들이 플라스틱을 먹거나 플라스틱이 몸에 휘감아져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듯 보여준다. 또한 색깔의 대비를 이용하여 이 책의 주제인 '플라스틱'이 부각되게끔 하였다. 이 책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지구 환경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 #플라스틱 #지구 #환류 #바다생물 #쓰레기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3학년 도덕 6.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 5학년 과학 2.생물과 환경 | 6학년 사회 2.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함께 볼 만한 콘텐츠

도서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 산드라 크라우트바슐 지음. 양철북. 2016 | 도서 〈어쩌지? 플라스틱은 돌고 돌아서 돌아온대!〉. 이진규 지음. 생각하는아이지. 2016 | 유튜브 〈우리가 무심코 쓴 플라스틱이 모여 아주 큰 나라가 됐다는 사실〉. 엠빅뉴스. 2018. (1:32) | 유튜브 〈바다에 쓰레기가 숨어있다고?〉. 해양환경공단. 2019. (4:55) | 유튜브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 EBS. 2019. (23:10) | 유튜브 〈제로 웨이스트 원칙 5단계〉. TVN. 2019. (4:57)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성인

유리와 넬리의 비치코밍 이야기



— **정민재** 대구 새론초등학교

지구가 보내는 위험한 신호, 아픈 바다 이야기 | 박선희 글 | 박선하 그림 | 팜파스 | 2020 | 12,000원 | 161쪽

지구 면적의 70%인 바다를 종종 잊고 육지의 생물에게만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환경 주제 비문학 책이지만 관련 동화가 실려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에 부담이 없고, 이야기마다 바다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 꼼꼼하게 다루고 있다. 유리와 넬라의 비치코밍 이야기, 지속 가능한 수산물 식당의 사라져 가는 해산물 이야기, 삼촌이 들려주는 바다 분쟁과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새끼 물고기 미치가 바닷속 오염으로 더는 살 곳이 없어져 가는 이야기들은 바다의 위기에 대해 절로 반성하며 문제의식을 느끼게 한다.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실천방안들도 제시하고 있다. 매일 쓰는 치약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다니, 인간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며 동시에 무엇을 헤치고 있는 것인지. 지구온난화로 드러난 북극해의 아픈 신호를 보며, 새로운 항로와 자원을 두고 이권 분쟁을 할 것이 아니라, 북극의 생태계를 위한 대책과 실천이 절실함을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다. #비치코밍 #바다 남획 #지구온난화 #바다 산성화 #방사능 오염 #석유 시추 사고 #바다 분쟁 #해양보호구역 #지속가능한 바다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6학년 1학기 국어 〈독서단원〉 한 학기 한 권 읽기 (우리 주변 문제를 다룬 책 읽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그림책 〈바다야 미안해〉. 조엘 하퍼 지음. 에린 오셔 그림. 썬더키즈. 2019

다큐멘터리 영화 〈오션스(Oceans)〉 자크 페렝, 자크 클뤼조 감독. 2009. (1:40:00)

백년 뒤 사람들은 누구와 살까?



— **정재연** 경기 가평초등학교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 | 유미희 글 | 장선환 그림 | 초록개구리 | 2020 | 13500원 | 40쪽 | 그림책

지구별은 늘 바쁘다. 종이컵, 옷, 에어컨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매일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시각, 구상나무, 수리부엉이, 푸른바다거북이 사라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물건이 태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생명이 죽어간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는 대비되는 두 모습을 번갈아 보여줌으로써, 회색으로 변하는 지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수천, 수억 개씩 만들어 내는 물건들이 사라지기는 하는 걸까? 종이컵, 플라스틱이 썩어 흙으로 바뀌지 않는데 그럼 미래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 작가는 묻는다. "십 년, 오십 년, 백 년 뒤 …… 사람들은 누구랑 놀까요? 새 떠난 산에서 물고기 놀지 않는 강에서 풀벌레 노랫소리 끊긴 숲에서 (중략) 사람들은 누구랑 살까요? 단 하나뿐인 쓰레기별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 박물관에서 살아 있는 생명체가 아닌, 코끼리 '동상', 곤충 '그림'을 보는 중이다. 책을 덮을 즈음 내가 오늘 무심코 사용한 종이컵이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이었을까? 묻게 된다.

#환경 #쓰레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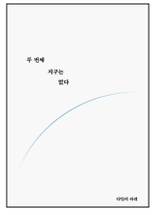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3학년 도덕 6.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 3학년 도덕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2. 우리 모두를 위한 길

함께 볼 만한 콘텐츠

도서 〈플라스틱 섬〉. 이명애. 상출판사. 2020

지구 생태 초과의 날



— **고을레라** 제주 노형중학교

두 번째 지구는 없다 | 타일러 라쉬 글 | 알에이치코리아 | 2020 | 14,000원 | 208쪽

이 책은 FSC 인증을 받은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한 책이다. 책을 만듦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걱정한 작가의 차선택이다. 8개 국어를 하는 언어 천재 타일러 라쉬는 자신의 꿈을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 환경을 보호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는 현실에, 용기를 내어 자기 생각을 밝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Earth Overshoot Day)이 있다. 인구가 지구 자원을 사용한 양과 배출한 폐기물 규모가 지구의 생산 능력과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날이다. 매년 그 날짜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그 날짜를 지나면 내년도의 자원을 미리 앞당겨 쓰고 있던 셈이다. 우리가 모두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이다. 이 책은 쉽게 읽히는 책이지만 환경을 보호하자고 가볍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얼마나 큰 위기가 예고되어 있는지 알려주며, 자연이 망가지면 도망칠 곳이 없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소비자로서 행동하길 촉구한다. 환경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FSC인증 #국제산림관리협의회 #친환경종이 #콩기름잉크 #기후위기 #환경파괴 #WWF #세계자연기금 #타일러

함께 볼 만한 콘텐츠

유튜브 〈한겨레TV 인터뷰. 타일러 라쉬의 꿈은 "기후위기 해결"〉(36:10) https://www.youtube.com/watch?v=H0JcOLdQHHo | 유튜브 〈MKTV 김미경TV. 타일러가 알려주는 코로나19와 기후 위기의 '불편한 진실'〉(22:34) https://www.youtube.com/watch?v=A1TLH0QJFKo | 도서 〈6도의 멸종〉. 마크 라이너스. 세종서적. 2014 | 도서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 그레타 툰베리, 베아타 에르만. 책담. 2019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성인

우리는 무엇을 하고, 혹은 하지 않을 수 있는지

— **김담희** 전북 전주우림중학교



나무를 심은 사람 | 장 지오노 글 | 두레 | 2018 | 10,000원 | 104쪽

굵은 도토리 한 무더기를 모아 그것들을 다시 열 개씩 세어 나누는 손이 보인다.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 완벽한 도토리 백 개가 모이면 그는 산등성이에 구멍을 파고는 그 안에 도토리를 심고 덮는다. 그는 3년 동안 도토리 10만 개를 심었고, 아무것도 없던 땅에 떡갈나무 1만 그루가 살아남아 자랐다. 작가의 실제 체험을 기반으로 한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의 이야기이다. 두 번의 세계대전 가운데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전과 다름없이 계속하여 나무를 심었다. 한 사람의 평화롭고 규칙적인 일이 땅을, 마을을, 사람들을, 지구의 표면을 바꾸어놓았다. 우리 역시 지구에 존재하는 한 사람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무엇을 하고 혹은 하지 않을 수 있을지 자연스레 고민하게 된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우리는 목격했다. 자연이 멋진 변화를 잇달아 만들어 내는 것을. 나무를 심으며, 덜 소비하고 나눠 쓰며, 분리수거를 꼼꼼히 하며 단순하고 고집스럽게 우리가 반복해가는 그 일들이 멋진 변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힘이란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식목일 #숲 #자연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도덕과 [9도04-01]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삶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생태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소비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해 보며, 환경친화적인 실천 기술을 익힐 수 있다. | 환경과 [9환01-04]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토의한다.| 사회과 [10통사02-02]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제안한다.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그림책 〈나무를 심은 사람〉. 장 지오노 지음. 프레데릭 그림. 두레아이들. 2002. 12,000원. 52쪽. | 애니메이션 〈나무를 심은 사람 The Man Who Planted Trees(30:02)〉. 1987. https://youtu.be/gx5He0CsnAE | 도서 〈완벽한 날들: 시인이 세상에 바치는 찬사〉. 메리 올리버. 마음산책. 2013. 10,000원. 168쪽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성인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 **김소영** 강원 평창중학교



쓰레기책: 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 | 이동학 글 | 오도스 | 2020 | 16,900원 | 276쪽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세계 61개국 157개 도시를 여행하며 눈으로 확인하고, 자료를 조사하여 얻은 세계 쓰레기 현황 보고서. 중국의 쓰레기 폐기물 수입 금지에 따른 여러 국가의 쓰레기 처리 상황과 불법 폐기물 수출로 인한 국가 간 분쟁, 제로 웨이스트, 공유 냉장고, 쓰레기 산업 등 환경 분야의 시의성 있는 이슈를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

그저 '쓰레기의 심각성을,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좋겠을 뿐'이라는 작가의 말처럼, 이 책에는 '해야 한다' 또는 '하자!' 식의 결론은 등장하지 않지만, 세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와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쓰레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영감과 자극'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처럼 심각한 쓰레기 문제에 맞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갖게 한다.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순환 #제로웨이스트 #지속가능성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사회. 지속 가능한 세계 / 지구환경문제, 지역 환경문제, 환경 의식
도덕. 자연·초월과의 관계 /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자연관)
환경. 환경의 체계, 지역 환경과 지구 환경, 지속 가능한 사회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그림책 〈플라스틱 섬〉. 이명애 글·그림. 상출판사. 2014 | 다큐멘터리 〈플라스틱, 바다를 삼키다(A Plastic Ocean), 2016〉(100:00) | 유튜브 〈[ubc 특집-필환경 시대의 지구수다 1부] 올바른 불편함을 선택한다는 것〉(69:12) | TED 강연 〈Tristram Stuart: The global food waste scandal, 2012〉(14:00) | 기사 〈[2019 컨슈머포럼] 필환경 왔다… '제로웨이스트' 시대로〉 이유정. 헤럴드경제. (2018.11.20.)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성인

동물복지란 무엇인가

— **김주애** 대전 은어송중학교



왜 동물원이 문제일까?: 10대에게 들려주는 동물원 이야기 | 전채은 글 | 반니 | 2019 | 13,000원 | 192쪽

우리가 동물원에서 만난 동물들은 과연 행복할까? 그들에게는 동물원이 안락한 공간일까 아니면 억압의 공간일까? 〈왜 동물원이 문제일까?〉에서는 자연환경이 아닌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환경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동물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동물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제시해 준다.

더불어 동물원이 언제,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 탄생과 변화의 역사와 그 과정에서 생긴 한계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동물원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가지게 도와준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동물원에서 만난 동물들을 우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 동등하고 소중한 존재로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물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동물원의 탄생과 변화,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점, 환경 풍부화의 필요성,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동물원 #사육사 #환경 #수족관 #동물복지 #동물권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중학 도덕과 [9도04-01]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삶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생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소비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해 보며, 환경친화적인 실천 기술을 익힐 수 있다.

고등 사회과 [10통사02-02]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제안한다.

고등 도덕과 [12생윤02-02]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여러 윤리적 관점을 비교·분석하고,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동물의 권리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자신의 관점을 윤리 이론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

고등 도덕과 [12고윤04-01]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쾌락)을 도덕적 기준으로 삼는 공리주의를 칸트의 견해와 비교하여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확대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함께 볼 만한 콘텐츠

도서 〈동물원 동물은 행복할까?〉. 로브 레이들로 지음. 책공장더불어. 2012

도서 〈의사와 수의사가 만나다: 인간과 동물의 건강, 그 놀라운 연관성〉. 바버라 내터슨-호러위츠·캐스린 바워스 지음. 모멘토. 2017

유튜브 〈동물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세계 동물권 선언 40년(3:18)〉. 스브스뉴스. 2018. https://youtu.be/oJhx3ox3z8A

기사 〈[영화의 쓸모] 동물권, 동물만의 문제 아니다(5:55)〉. KBS. 송형국 기자. 2019.09.05. http://mn.kbs.co.kr/news/view.do?ncd=4277100

기사 〈코로나로 문 닫는 체험형 실내동물원, 동물들은 어디로?(2:19)〉. KBS. 박민경 기자. 2020.10.0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8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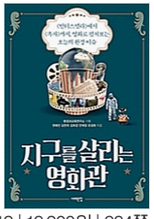
기사 〈꿈의 공간 동물원? 가장 나쁜 것은 체험이다〉. 오마이뉴스. 전채은 기자. 2020.06.14. http://omn.kr/1nw2o

영화 〈해치지 않아(117:00)〉. 손재곤 감독. 2019. 12세 관람가 | 영화 〈동물, 원(97:00)〉. 왕민철 감독. 2018. 전체 관람가

영화 〈블랙피쉬(Blackfish)(83:00)〉. 가브리엘라 코우퍼스웨이트 감독. 2013. 12세 관람가

소중하고 값진 것을 지키려면

— **김진경** 대구 학남중학교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 | 환경과교육연구소, 권혜선, 김찬국, 안재정, 조성화 글 | 서해문집 | 2018 | 12,900원 | 224쪽

올해 전 세계가 코로나를 앓고 있다. 좀 잠잠해지는가 싶으면 재확산으로 끝을 알 수 없다. 고도의 의료기술이 발전한 21세기에 바이러스가 인류의 생활방식을 바꾸고 심지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될 줄이야! 마스크를 써야 하는 오늘에야 어제의 자유로운 호흡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소중하고 값진 것을 지키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과연 어제까지의 세계에서 우리가 누려온 환경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러 왔던가 생각해본다.

〈인터스텔라〉에서 〈옥자〉까지 19편의 영화와 함께 풀어낸 환경 이슈는 그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싸는 데 든 노력과 비용이 얼마나 박했는지 보여준다. 현실에 상상력을 더해 미래의 처참한 모습을 그린 영화와 함께 읽다 보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비용 없이 가치만 얻으려고 하는 미란도 그룹의 든든한 뒷배가 바로 우리일지도 모른다'는 〈옥자〉의 공장식 축산을 비판하는 작가의 지적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영화 #지구 #옥자 #환경이슈 #지속가능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중3 국어(천재교육) 2. 우리가 만나는 세상 1) 토론하기(환경 이슈에 대한 찬반 토론 등)

함께 볼 만한 콘텐츠

영화 〈언더독〉 | 영화 〈컨테이젼〉 | 영화 〈투모로우〉 | 도서 〈오래된 미래〉 | 도서 〈에코사전〉

단 하나뿐인 지구를 위하여

— **박보경** 경기 안산부곡중학교



인간의 시대 | 최평순, 다큐프라임 〈인류세〉 제작팀 글 | 해나무 | 2020 | 16,500원 | 324쪽

인류세. 제목을 보고 떠오른 단어는 '세금'이었다. 인류가 만든 지금에 책임을 진다는 은유라 생각했다. 첫 장을 펼치고, 깨닫는다. 아, 세(稅)가 아니라 세(世)로구나.

인류는 바야흐로 전성기다. 먹이사슬의 꼭대기에서 어떤 천적도 없이 번식하는 유일한 개체, 인류. 그러나 공존을 모르는 인류의 생존방식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지구 시스템을 변화시켜왔다. 환경이 망가질수록 도시는 번영하고 사람들은 풍요로워졌으나 인구과밀로 쓰레기가 증가했고 사람들은 갈수록 질병과 오염에 취약해졌다. 불멸의 플라스틱과 점점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농지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열대우림에서는 하루에만 몇십 종의 동식물들이 한꺼번에 멸종한다.

"지구 전체 인구가 한국인처럼 산다면 3.3개의 지구가 필요하다." 우리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낙관과 비관을 오가는 석학들의 발언 속에 「총 균 쇠」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대답이 유독 눈에 밟힌다. "힘은 도덕적으로 중립입니다. 인간의 힘은 행복한 삶을 줄 수도, 세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죠."

책이 편집되던 2020년 1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제 인류의 세상은 어떤 방향을 향할 것인가. 책을 읽으며 의문과 질문을 동시에 곱씹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기후변화 #플라스틱 #대멸종 #메가시티 #쓰레기 #인류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초등 사회과 [6사08-05]지구촌의 주요 환경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중학 도덕과 [9도04-01]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삶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생태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소비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해 보며, 환경친화적인 실천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중학 과학과 [9과03-03]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중학 환경과 [9환04-05] 다양한 환경문제를 환경정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자신이 속한 학교, 마을, 지역, 국가 등을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참여 방식을 조사한다.

고등 과학과 [10통과08-01]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더불어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함께 볼 만한 콘텐츠

도서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플라스틱부터 음식물까지 한국형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서〉. 홍수열. 슬로비. 2020.16,000원. 208쪽.

다큐멘터리 〈EBS 다큐프라임 '인류세'(각 52분, 3부작)〉. 2019.

(1부)https://docuprime.ebs.co.kr/docuprime/vodReplayView?siteCd=DP&prodId=348&courseId=&stepId=&lectId=20107164

(2부)https://docuprime.ebs.co.kr/docuprime/vodReplayView?siteCd=DP&prodId=348&courseId=&stepId=&lectId=20107165

(3부)https://docuprime.ebs.co.kr/docuprime/vodReplayView?siteCd=DP&prodId=348&courseId=&stepId=&lectId=20107626

초1 | 초2 | 초3 | 초4 | 초5 | 초6 | 중1 | 중2 | **중3** | **고1** | **고2** | **고3** | **성인**

우리는 모두 지구별 여행자

— **박인혜** 충북 청주중앙중학교



파란하늘 빨간지구 | 조천호 글 | 동아시아 | 2019 | 16,000원 | 292쪽

지구별 여행자라는 말이 있다. 지구는 인류가 우연으로 발생하여 잠시 살다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름답고 겸손한 문장이다. 이 책은 이 문장을 과학적 사실로 납득시킨다. "인류는 필연적으로 생물의 최정점에 오른 것이 아니다. 기후의 변화로 수증기가 응결되어 비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 바다가 생겨났다. 바닷속의 이산화탄소와 지구의 판들이 갈라진 틈에서 생겨난 탄산칼슘과 탄산마그네슘 그리고 산소로 인해 식물이 생겨나고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식물이 육상으로 진출하였다. 달이 만들어지면서 지구의 자전축의 흔들림을 안정시켰으며 적당히 기울여 기후가 안정되고 계절의 변화가 나타났다. 우연히 적합한 기후가 출현했고, 우연히 우리가 자연 선택을 받았다. 인류는 거대한 시계 속에 겨우 몇 분간 왕좌를 훔쳐 앉았을 뿐이다." 마주해야 할 두려운 사실은 자연은 우리 없이 살아남을 수 있지만 우리는 자연 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두려움에 손톱을 물어뜯는 당신의 모습이 작가가 의도한 반응이었을 것이다. #기후#날씨#기후변화#자연#환경#일기예보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중학교 과학 환경과 생태계, 기권과 날씨 단원 (이상기후에 대한 기사와 도서 탐색 후 보고서 작성)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그림책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 유다정 글. 박재현 그림. 미래아이, 2008

유튜브 씨리얼 채널〈과학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당신이 현실부정하는 10년 후 팩트〉 https://youtu.be/H-SJ3eKdhSA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노바-기후변화 탐구〉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우리의 지구〉

제로 플라스틱, 제로 웨이스트

— **박진아**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 | 산드라 크라우트바슐 글 | 양철북 | 2016 | 14,400원 | 320쪽

"최근에 와서 나는 '환경문제'라는 표현이 오히려 자연을 우리 삶의 바탕으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며, 자기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를 너무나 간단히 자기의 삶과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경향을 만든다고 확신하고 있다."

1869년, 최초의 천연수지 플라스틱인 셀룰로이드가 만들어졌다. 세상에 등장한 지 200년이 되지 않은 플라스틱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가?

오스트리아에 사는 저자는 〈플라스틱 행성〉이라는 영화를 본 후 플라스틱 없는 삶을 실천하게 된다.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물건을 사지 않을 뿐 아니라 냉장고 등 합성 소재로 만들어진 기기의 사용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저자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합의를 통해 '제로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까지 나아갈 수 있다. 플라스틱 없는 생활에서 그치지 않고 '제로웨이스트'의 삶을 꿈꾸는 그를 통해 우리의 현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플라스틱프리 #제로웨이스트

함께 볼 만한 콘텐츠

다큐멘터리 〈SBS 스페셜 515회 '식탁 위로 돌아온 미세 플라스틱'(52:12)〉. 2018. https://programs.sbs.co.kr/culture/sbsspecial/vod/53591/22000283303?type=tv&cooper=nhn

기사 〈'플라스틱 프리' 외치는 사람들 "코로나와 환경, 무관하지 않다"〉 경향신문. 고희진 기자. 2020.09.02.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021525001

다큐멘터리 〈미래생존전략! 플라스틱 제로존(57:44)〉. 2018. https://youtu.be/P06J2MaC_Xs / https://youtu.be/BoQD_0WTMFs

당신도 쓰레기제로 라이프를 살 수 있습니다

— **소아름** 전북 서전주중학교



쓰레기 제로 라이프 | 실비 드롤랑 글 | 장 부르기뇽 그림 | 북스힐 | 2020 | 15,000원 | 260쪽

2020년, 우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 음식과 택배는 일상이 되었고 그 결과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이 급격히 늘었다. 일각에서는 환경에 관해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더는 이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느 벨기에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며 이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쓰레기 제로 라이프〉는 한 가족의 소비패턴에 관한 이야기다. 당신도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며 독자들에게 용기를 건네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쓰레기통 속을 줄이고 쓰레기 제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5가지 규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썩는 제품을 사용해서 자원으로 활용하기, 필요 없는 물건 거절하기, 쓰는 양을 줄이기, 물건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가 그것이다. 여기에 소개된 방법 이외에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보자. 그 고민을 가족과 함께한다면 '한국의 제로 카라비스티유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되겠다. 지구를 위한 현명함과 용기가 필요하다. #쓰레기제로 #제로웨이스트 #행동하는소비자 #절약 #친환경 #지역생산품 #중고품 #벌크구매

함께 볼 만한 콘텐츠

유튜브 〈생활 속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습관, 제로 웨이스트 운동〉(2019.5.18. 뉴스데스크 MBC)(2분33초) https://www.youtube.com/watch?v=d9oe9DWVbT8

신문기사 〈아시아경제, 제로 웨이스트 향한 첫 발걸음 '더 피커'〉 (2020.10.2.기사) (검색어 : 제로 웨이스트, 더 피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0111154805337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성인

친절한 비거니즘 입문서

— **이미림** 전북 전주서중학교



나의 비거니즘 만화 | 보선 글 | 푸른숲 | 2020 | 16,500원 | 440쪽 | 만화책

비건 친화적인 사회가 되려면 완벽한 비건 1명보다 불완전한 비건 지향인 100명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저자는 비거니즘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비건의 일상부터 비거니즘으로 바라본 세상, 공장식 축산의 문제, 비건에 대한 오해 등을 다루며 비거니즘에 대해 친절히 설명하는 입문서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고 그리게 되었다.

'비거니즘은 완벽한 채식주의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동물의 삶을 존중하고 모든 동물의 착취에 반대하는 삶의 방식이자 가치관이다. 삶의 반경을 넓히는 방향성이기에 그 실천 방법은 무척 많고 다양하다. 분리수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동물 실험하지 않은 제품 소비하기, 공장식 축산의 폭력성 이해하기, 동물을 대상화하지 않으려 노력하기 등 이 중 하나라도 실천하고 있다면 이미 '비건'을 삶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본문 32~39쪽 인용)

비건이라 하면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도를 망설이는 이들에게 불완전한 실천이라도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좀 더 비거니즘에 다가갈 용기를 주는 책이다. #비건 #채식 #환경 #공장식축산 #동물권 #동물해방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중학 도덕과 [9도04-01]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삶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생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소비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해 보며, 환경친화적인 실천 기술을 익힐 수 있다.
고등 사회과 [10통사02-02]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제안한다.
고등 도덕과 [12생윤02-02]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여러 윤리적 관점을 비교·분석하고,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동물의 권리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자신의 관점을 윤리 이론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

함께 볼 만한 콘텐츠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 AN OMNIVOROUS FAMILY'S DILEMMA(106:00)〉. 황윤 감독. 2014. 전체 관람가.
영화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Eating Animals(94:00)〉. 크리스토퍼 딜론 퀸 감독. 2017.
유튜브 〈미국 동물권리활동가, 게리 유로프스키 강연 WHY VEGAN - Gary Yourofsky(70:22)〉. 게리 유로프스키 강연. 2010. https://youtu.be/9BrdY07mtX8
도서 〈아무튼, 비건〉. 김한민. 위고. 2018. 9,900원. 174쪽.
도서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에코페미니스트의 행복혁명〉. 강남순 외 14명 지음. 시금치. 2016. 15,000원. 232쪽.

우리 아이가 지구의 마지막 아이가 되지 않도록

— **전수익** 경기 안성 만정중학교



환경호르몬 어떻게 해결할까 박태균 글 | 동아엠앤비 | 2019 | 13,000원 | 216쪽

'2027년 모든 여성은 임신 기능을 상실하여 더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다. 18세 4개월의 '마지막 아기 디에고'의 사망 소식을 접하며 사람들은 울며 애통해한다.' 영화 〈칠드런 오브 맨〉의 한 장면이다.

환경호르몬은 우리 몸뿐 아니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 위협은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대 3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저자는 책에서 환경호르몬의 정의는 물론, 환경호르몬 함유 제품,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 환경호르몬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인 이 시대에 환경호르몬은 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다. 환경호르몬은 수컷의 불임률을 3배 높이고, 난자 수정률도 20%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리는 현재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아기가 지구의 마지막 아이가 되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만 할까? 이 책을 통해 환경호르몬 해결 방법을 알고, 실천을 통해 나와 우리 가족, 미래까지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환경호르몬 #미세 플라스틱 #생태계 #호르몬 #플라스틱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중학교 사회 2, 10단원 환경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함께 볼 만한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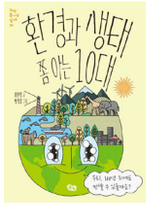
유튜브 〈sbs스페셜 환경호르몬의 습격 1, 2부〉 | 〈YTN 사이언스, 환경호르몬 시리즈〉

뉴스 〈환경 호르몬 없는 플라스틱 시대 온다-우리가 몰랐던 과학 이야기〉 세계일보. 2020.9.20

도서 〈도둑 맞은 미래〉 테오 콜본 지음. 사이언스북스. 1997 | 〈화학물질의 습격, 위험한 시대를 사는 법〉 계명찬. 코리아닷컴. 2018

우리의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정지원** 대구 왕선중학교



환경과 생태 쫌 아는 10대 라이프 | 최원형 글 | 풀빛 | 2019 | 13,000원 | 184쪽

'다음에는 이걸 사야지.' 소비에 대한 욕구로 가득 찬 우리는 매번 새로운 물건을 사는 재미를 느끼며 살고 있다. 새로운 음식, 옷, 신발, 핸드폰.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물건들과 음식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그런데 우리의 이 행복은 미래의 환경과 바꾼 행복이라는 것을 최원형 작가는 이 책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 컵라면과 아보카도를 먹는 일은 숲을 사라지게 하고 물이 부족하게 만드는 일이며, 일상 속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바다 생물의 물고기의 밥이 되고 결국은 인간이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준다. 우리의 소비는 모든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 불편함을 감수하며 공정 무역 물품을 사용하고 로컬푸드를 먹고 업사이클링 제품을 사용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들이 모여 우리 지구의 쓰레기 산을 줄이고 산호를 살릴 수 있다. 작은 실천들이 인간과 동물, 환경을 살리는 일임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책이다. #환경오염 #컵라면 #바나나 #아보카도 #플라스틱 #핸드폰 #쓰레기무덤 #패션 #화장품 #롱패딩 #동물권 #생물다양성 #로컬푸드 #업사이클링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중등 사회과 [9사(지리) 10-02]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이 다른 국가로 이전한 사례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 환경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 중등 사회과 [9사(지리) 10-03] 생활 속의 환경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비교하고, 환경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 중등 도덕과 [9도04-01]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삶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생태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소비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해 보며, 환경친화적인 실천 기술을 익힐 수 있다

함께 볼 만한 콘텐츠

도서 〈1.5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위한 긴급 메시지〉. 한재각 엮음. 한티재. 2019. 10,000원. 126쪽 | 다큐멘터리 〈EBS 다큐 시선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49:36)〉. 2019. https://www.ebs.co.kr/tv/show?prodId=123937 | 유튜브 〈[인포그래픽] 패스트패션의 두 얼굴(4:24)〉. 서울여자대학교 콘텐츠디자인학과). 2014. https://youtu.be/Ac4SVnBZIBM

생태계의 또 다른 한 축, 야생동물

— **하모란** 충남 태안중학교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이 땅에 사는 야생동물의 수난과 구조 이야기 |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글 | 양철북 | 2018 | 14,000원 | 260쪽

우리의 일상 속 아주 가까이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야생동물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부엉이, 삵, 매 등 우리의 일상에서 다소 멀어 보이는 그들을 책에서 바로 우리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곁에 있을까?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는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저마다의 아픈 사연으로 들어온다. 그중 대다수는 바로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건물이나 물건 등에 의해 사고를 당해 들어온다. 편익을 위해 발전하는 동안 환경은 빠르게 파괴되었고, 우리와 함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다른 동물에 대한 배려는 자연스럽게 묵살됐다. 그들의 서식지 환경을 마음껏 유린하여 더는 그들이 살 수 없게 만든 땅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도 이로울 것인가? 책은 다친 동물들을 통해 꾸준히 그러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렇기에 정책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함께 환경을 보존하고 그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배려를 고민해야 한다고 절박하게 말하고 있다. #생태계 #야생동물 #환경 #동물권 #서식지파괴

함께 볼 만한 콘텐츠

유튜브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채널

유튜브 '새덕후' 채널 〈1년 800만 마리 새들의 유리창 충돌(정보편)〉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 **허민영** 전북 남원용성중학교



아무튼, 비건 | 김한민 글 | 위고 | 2018 | 9,900원 | 174쪽

식당, 카페, 화장품 등에서 비건 제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6월 21일 광화문에서 열린 '코로나19 근본 대책인 비건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에서도 비건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와 비건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김한민 작가는 '연결'에 주목했다. 코로나19를 통해 사람, 동물, 환경이 하나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만든 사스, 메르스와 같은 바이러스는 모두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더는 인간의 관점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작가는 책을 통해 연결감을 말살하는 타자화의 무서움을 이야기하며 독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도 연결되었나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읽을 때 이 책은 타자가 아닌 내 이야기가 된다. 작가는 육류와 유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진실을 말한다. 동물을 학대하는 공장식 축산업이 환경파괴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책을 통해 타자의 행복과 고통이 내 행복과 고통으로 이어지는 '연결'을 느끼길 바란다. #비건 #동물권 #환경 #공장식축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영화 〈더 게임 체인저스(88:00)〉. 루이 시호요스 감독. 2018.

유튜브 〈도미니언〉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성인

인간만의 편리를 위해 쌓아올린 인류의 삶

— **김경리** 제주 한림고등학교



목소리를 드릴게요: 정세랑 소설집 | 정세랑 글 | 아작 | 2020 | 14,800원 | 269쪽

『보건교사 안은영』으로 국내 SF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작가 정세랑의 SF 단편집이다. 정세랑은 이미 『지구에서 한아뿐』에서도 환경 문제를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버무려 나간 장르문학 작가이다. 이 단편집 8편 중 2편의 이야기에 환경에 대한 현 인류의 태도가 미래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리셋〉은 플라스틱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먹어 치우는 거대 지렁이의 지구 침공(?)의 비밀을 여성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파헤쳐나가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인간만을 위한 편리함을 쌓아올린 현 인류의 삶을 지적하고 있다. 〈7교시〉는 여섯 번째 대멸종 이후 23세기의 현대사 수업을 가정한 이야기로, 육식, 이상 기후, 동식물 멸종, 변종 바이러스, 인공 포궁 등 미래에 인간으로 인해 일어날 법한 변화를 상상하게 만들어 준다. "23세기 사람들이 21세기 사람들을 역겨워할까 봐 두렵다", "우리와 닮지 않은 존재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작가의 말과 이 두 편의 이야기를 통해 과연 우리의 시대는 후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SF #에코페미니즘 #환경문제 #지속가능성 #종다양성 #멸종 #지렁이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리셋] 독서활동: 생존자의 입장에서 일기 쓰기 등 | [7교시] 독서활동: 이야기 속 수업 내용에 제시된 소재(육식, 종차별, 대멸종, 변종 바이러스, 인공 포궁, 인구수 제한, 공동체 유전자 사용 등)로 토론하기 등

함께 볼 만한 콘텐츠

도서 〈지구에서 한아뿐〉 정세랑. 난다. 2019 | 도서 〈지구, 2084〉 요슈타인 가아더. 라임. 2014 | 도서 〈지렁이, 소리 없이 땅을 일구는 일꾼〉에이미 스튜어트. 달팽이. 2005 | 도서 〈지구의 절반〉 에드워드 윌슨. 사이언스북스. 2017 | 도서 〈여섯 번째 대멸종〉 엘리자베스 콜버트. 처음북스. 2014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성인

기후위기, 우리 모두의 책임

— **김경리** 제주 한림고등학교



한 그루 나무를 심으면 천 개의 복이 온다 | 오기출 글 | 사우 | 2017 | 15,000원 | 257쪽

국제 구호단체의 광고 속 아이들, 일부러 쓰레기 매립지 인근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사막화. 혹시 이 세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진 아시아의 한 나라를 알고 있는가?

산업화 이후 약 1세기 동안 발생한 환경문제로 상승한 지구의 기온, 단 1도. 아프리카의 사막화를 유발한 인도양에서 상승한 수온, 겨우 0.5도. 그럼 기온이 '2도'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전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먼저 기온이 2도 상승한 지역이 있었다. 바로 몽골이다. 몽골은 수십 년 이전부터 사막화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책은 몽골의 사막화 원인, 환경운동의 과정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몽골의 사막화를 비롯해 아프리카 수단 내전, 미세먼지, 슈퍼태풍 또한 기후위기가 원인이며, 자본주의를 지나치게 추구한 기업, 정치인, 미디어, 강대국 등을 그 원인 제공자로 지적한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의 진행속도를 늦추고, 전 세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책무성과 연대를 강조한 '공동체 모델'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는 개개인의 작은 노력으로는 돌이킬 수 없게 된 기후위기. 이 책을 통해 기후위기의 이면에 작용하는 이해관계를 깨닫고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지구촌 공동체가 어떻게 희망을 찾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할지에 대해 실마리를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몽골 #환경난민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사막화 #생명의 토지상 #환경운동 #공동

체모델 #푸른아시아 #환경보호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사회(세계지리/사회문제탐구)/과학(지구과학/생명과학)/도덕·윤리(생활과윤리) 교과 융합 탐구활동 전개 - 국가 간 지리적 관계, 식생, 기온(수온)의 흐름, 기후와 동식물의 관계, 환경윤리 등

함께 볼 만한 콘텐츠

도서 〈나무를 심은 사람〉. 장 지오노. 두레. 2018.
도서 〈지구를 가꾼다는 것에 대하여〉. 왕가리 마타이. 민음사. 2012.
도서 〈기후정의〉. 메리 로빈슨. 필로소픽. 2020.
도서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 이승은, 고문현. 21세기북스. 2019.
기사 〈몽골 덮친 사막화… 황사에 '환경난민'까지〉. KBS. 2015.01.1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116854)
기사 〈몽골 조림 절반 실패…나무 심고서는 '나 몰라라'〉 KBS. 2015.05.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167002)
기사 〈'기후 난민'으로 전락한 몽골 유목민들〉. KBS. 2019.02.0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31622&ref=A)
다큐멘터리 EBS 〈하나뿐인 지구〉 '기후변화 특집 사막 난민, 벼랑 끝에 서다' (2014.04.04. 방송) (https://www.ebs.co.kr/tv/show?lectId=10208738)

기후변화가 뭐니?

— 김미니 강원 설악고등학교



1.5도의 미래 : 기후변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 | 윤신영 글 | 나무야 | 2018 | 13,000원 | 170쪽

일상 속에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유행하고 있다. 아니 제로 웨이스트는 이제 필수가 되었다고도 한다. 코로나19는 버려지는 것들에 주목하게 했다. 버려진 것은 어디로 갈까? 어느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건립 장소가 문제고, 뭐가 문제라는데 버린다고 끝이 아니란 것을 너무 절실히 알아버렸다.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막상 설명해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기후변화. 최근의 많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후변화가 왜 문제가 되는지,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 선택한 일들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촉발했고,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며 기후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등 자칫 너무 어렵거나 뻔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게 국내·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관심이 생겼지만,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면 처음 읽어볼 책으로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책이다.

#자연재해 #신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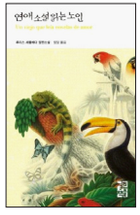
함께 볼 만한 콘텐츠

유튜브 〈북극의 눈물〉 YTN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성인

정글, 그 낭만과 잔인함

— **김민정** 서울 광남고등학교



연애 소설 읽는 노인 | 루이스 세풀베다 글 | 열린책들 | 2009 | 11,800원 | 190쪽

이주민과 노다지꾼, 밀렵꾼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아마존 밀림 엘 이딜리오에서 백인 시체가 발견됐다. 주인공인 노인은 상처 모양과 여러 흔적을 지적하며 새끼 잃은 암살쾡이의 복수임을 밝힌다. 먼저 싸움을 건 쪽은 인간이었다. 마치 셜록에 빙의한 것 같이 사건을 해결해낸 이 노인의 취미는 연애 소설 읽기이다. 밀림의 우기, 연애 소설을 읽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려던 노인의 계획은 수색대 합류 압박에 위협받고 있었다. 밀림의 생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자연 그대로를 지키고 싶어 하는 노인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짧은 분량과 단순한 이야기 구조가 매력적인 이 책은 노인이 오두막에서 연애 소설을 읽는 낭만적 분위기와 밀림 속 인간의 잔인함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살해당한 환경 운동가 '치코 멘데스'에게 바치는 소설이기도 하다.

코로나19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환경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돌아보게 했다. 안타깝게도 환경 소설을 써왔던 칠레 출신 작가 루이스 세풀베다는 코로나19 감염 후 투병 끝에 타계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과연 자연을 지켜가고 있는지, 소중한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한다. #아마존 #밀림 #자연 파괴 #천천히 책읽기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필사하고 낭독하기, 선정 이유 말하기 | 짝토론, 모둠토론으로 질문을 선정하고, 토론하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영화 〈연애 소설 읽는 노인〉. 롤프 드 히어 감독. 2001.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성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 **김현주** 전남 광양고등학교



6도의 멸종: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 마크 라이너스 글 | 세종서적 | 2014 | 16,000원 | 374쪽

올 한 해 동안 땅에서는 질병이 창궐하고 바다의 해수면은 상승했다. 이례적인 기상이변과 그로 인한 물난리 등 이 지구라는 행성이 이젠 참다못해 그만하겠다며 화를 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책이 처음 쓰인 2008년 당시만 해도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었고, 몇몇 사람만이 목소리를 내는 정도였다. 당시 예측에 가까웠던 이론들이 2020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

책에서는 각 장을 통해 1도씩 지구의 온도가 상승해가는 악몽 같은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학자의 다양한 기후 이론을 이해하는 데 때로는 전문 용어가 조금 난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필자는 최소한 플라스틱으로 된 음료를 사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 책을 읽은 학생들이 어떤 다짐을 할지 궁금하다. #지구온난화 #해수면상승 #기후변화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통합과학] 환경과 에너지 - 생태계와 환경 | 〈환경〉 환경의 체계, 지속 가능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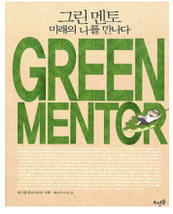
함께 볼 만한 콘텐츠

유튜브 〈과학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당신이 현실 부정하는 10년 후 팩트〉(https://youtu.be/H-SJ3eKdhSA)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성인

환경을 지키는 그린멘토 이야기

— **류금희** 서울 구일고등학교



그린멘토 : 미래의 나를 만나다 | 에코주니어 글 | 뜨인돌 | 2014 | 15,000원 | 327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환경교사모임에서 기획하고 중고등학교 환경동아리 학생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엮었다. 교수, 만화가, 디자이너, 수의사, PD, NGO, 기업, 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는 50명 멘토가 등장한다. 멘토의 이야기를 읽고 있노라면, 지구를 살려 우리를 구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을 기획한 환경교사모임 공동대표는 서문에서 멘토를 선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환경'과 '환경운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기획 의도에 맞게 다각도로 환경을 보는 눈을 키워준다. 환경을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직접적으로 애쓰는 분들과 생활환경과 접목해 실천하는 분들을 골고루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 당장 환경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관련 진로, 꿈을 찾아 쏟아내는 열정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멘토 #미래 #자연#진로#환경#환경교사모임#에코주니어

함께 볼 만한 콘텐츠

영화 〈미안해, 고마워, 2011〉〈광장의 닭, 2017〉〈잡식가족의 딜레마, 2015〉
방송 〈아마존의 눈물, 2009〉〈남극의 눈물, 2011〉
홈페이지 〈카라 동물교육 홈페이지 www.ekara.org〉〈통영 RCE세자트라숲 http://www.rce.or.kr〉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성인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히는 일상 속 방법

— **배고은** 전남 순천복성고등학교



지구온난화를 막는 50가지 방법 | Green Patriot Working Group 글 | 도요새 | 2009 | 10,000원 | 246쪽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배달, 포장 주문 및 택배를 사용하여 의식을 해결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일회용품으로 만든 포장 용기의 사용이 늘었다. 각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 수준도 상당하다. 많은 양의 제품을 한꺼번에 만들고 소비하다 보니 석유, 화학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는 탄소 배출량을 증가로 이어졌다. 이제부터라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거주 환경을 바꿀 엄청난 비극이 도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이 책은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서이다.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50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책에서 제시한 50가지 방법에는 지금 당장 실천할 방법이 생각보다 많다. 방 안의 온도를 조절하거나, 충전기 플러그를 뺀다거나,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는 방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탄소 배출량 줄이기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지구온난화 #해수면상승 #기후변화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생활과 과학] Ⅰ 건강한 생활 - 환경오염과 식생활

함께 볼 만한 콘텐츠

유튜브 〈그레타 툰베리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 풀영상(https://youtu.be/BvF8yG7G3mU)

환경문제, 과학을 통해 해결하자

— **송혜연** 서울 신도고등학교



위기의 지구, 물러설 곳 없는 인간 | 남성현 글 | 21세기북스 | 2020 | 16,000원 | 280쪽

이 책은 서울대의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책으로 엮은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 중 하나로 지구의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태풍,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 2부에서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해, 3부에서는 해양오염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가 마주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4부에서는 1, 2, 3부에서 다룬 지구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한다.

책을 읽으며 환경이 오염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다. 저자는 현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절하려는 공학적 접근보다 '과학'에서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구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지구관측과 데이터 과학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의 행위는 미래 후손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내가 사는 현재의 삶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인류는 공룡처럼 지구에서 멸종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책을 통해 지구의 위기상황에 대해 한 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환경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지구위기상황 #자연재해 #해양오염 #바다

통계와 사례를 통해 직면하는 환경 변화

— **오동은** 서울 청량고등학교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 호프 자런 글 | 김영사 | 2020 | 15,500원 | 276쪽

〈랩 걸〉에서 여성 과학자의 삶을 이야기했던 '호프 자런'의 신작이다. 저자는 방대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50년간 우리 삶이 얼마나 편리하고 풍요로워졌는지, 반면 지구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 특유의 유머와 친근함으로 설명한다.

1969년은 저자가 태어난 해로 지구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는 기준점이다. 이후 곡물 생산량이 세 배 증가했고, 화석연료 소비량은 세 배, 플라스틱 생산량이 열 배 늘어났다. 정확한 데이터는 우리가 갖는 대체에너지를 향한 막연한 희망에서 벗어나 현실을 일깨우게 해 준다.

저자는 '두려움은 문제를 외면하게 만들고, 정보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저자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도 걱정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덜 소비하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통계와 사례가 (저자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 중심인 점은 아쉽지만,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조사하여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실정에 맞게 채워보면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 같다. #지구 #환경 #식량 #에너지 #화석연료 #온난화 #기후변화

함께 볼 만한 콘텐츠

도서 〈인류세 : 인간의 시대〉 최평순, 다큐프라임 〈인류세〉 제작팀. 해나무. 342쪽. 2020.09.03
2050 거주불능 지구데이비드 월러스 웰즈 지음. 김재경 옮김. 추수밭. 424쪽. 2020.04.22
EBS 다큐프라임 〈인류세 1-3부〉
넷플릭스 〈빙하를 따라서〉, 〈산호초를 따라서〉, 〈플라스틱 바다를 삼키다〉

환경문제, 나를 둘러싼 현재의 일

— **이수현** 경기 광명북고등학교



오늘도, 녹색 이슈: 미세먼지에서 탈원전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환경 논쟁 | 김기범 글 | 다른 | 2018 | 13,500원 | 200쪽

환경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쌓여 '인간의 힘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들이닥친다. 저자는 환경문제에 대해 '어차피 내가 죽은 후에나 일어날 일'이라는 식의 방관자적 태도를 매우 우려한다.

이 책은 미세먼지, 플라스틱 사용과 처리에 대한 문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GMO 등의 밀접한 일상 속 이슈, 녹조와 산림·갯벌 생태계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이슈,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환경 난민 문제를 다룬 이슈, 동물과 생태에 대한 이슈, 에너지와 쓰레기 대란과 같은 자원과 소비에 대한 이슈 등 크게 5가지 녹색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을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세부 이슈 첫머리에 기사의 일부를 차용해 애피타이저로 이슈에 대한 흥미를 돋운 후, 본격적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다룬 메인 요리를 소개하고, 각 장 마지막은 '생각해보자'라는 확장된 질문을 디저트로 실어놓았다. 내용이 쉽고 흥미로울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책을 읽다 보면 환경문제가 나를 둘러싼 '현재의 일'임이 느껴질 것이다. #미세먼지 #수질오염 #4대강사업 #케미포비아 #유해화학물질 #LMO #멸종위기 #탄소세 #공장식축산 #살처분 #신재생에너지 #환경난민 #생물다양성

함께 볼 만한 콘텐츠

도서 〈지구별을 사랑하는 방법 100: 매일 하나씩 어렵지 않게 실천하는 에코라이프〉 김나나. 앤의서재

영상 〈EBS다큐프라임 '인류세' 시리즈 3부작〉 (각 52분)

도서 〈인류세: 인간의 시대〉 최평순, 다큐프라임 〈인류세〉제작팀. 해나무

도서 〈2050 거주불능 지구〉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 지음. 김재경 옮김. 추수밭

유튜브 〈플라스틱 A to Z(만들어진 배경부터 환경 문제까지)〉. EBS컬렉션 사이언스. (8:47)

기후에 투표하라

— **정한영** 전북외국어고등학교



누가 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가 | 마이클 만, 톰 톨스 글 | 미래인 | 2017 | 13,000원 | 244쪽

지구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경고한다. 특히 2020년 대한민국의 54일간 지속된 장마와 기습폭우는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실감케 하기에 충분했다. 197개국이 자국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합의한 파리기후변화회담(2015)을 통해 범국가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희망적이다(현재 미국은 파리협정을 탈퇴함). 그러나 기후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 '하키스틱 곡선'으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밝힌 과학자 마이클 만은 이 책을 통해 그들을 비판한다.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인 미국 내에서 과학적 진실이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 어떻게 왜곡되는지 신랄하게 꼬집으며,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돌이킬 수 없는 순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한다. 저자는 개인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기후에 투표'하라고 주장한다. 지구의 기후변화를 나쁜 쪽으로 불러일으키는 주체가 인간임을 자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행동해야 할 때이다. 향후 미 대선에서 미국 시민의 선택은 무엇일지 주목해보자. #기후#기후위기#환경#지속가능

환경에 영향주지 않고 살아남기

— **최예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노 임팩트 맨 이슈 | 콜린 베번 글 | 북하우스 | 2010 | 15,000원 | 368쪽

'뉴욕 한복판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살아남기 1년 프로젝트' 쓰레기도, 대중교통도, 전기도 안 된다. 테이크아웃 음식의 천국 뉴욕에서 벌이는 친환경 서바이벌 실험이 가능할까?

저자 콜린 베번은 친환경적인 생활 프로젝트를 시작한 첫날 코를 풀기 위해 키친타월을 뜯고, 딸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일회용품 기저귀를 들며 그동안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생활방식을 바꾸지 못한 엄청난 이유를 깨닫고 만다. '노 임팩트 맨'이 되기 위한 7단계 프로젝트는 쓰레기 만들지 않기, 교통수단 이용하지 않기, 우리 고장에서 난 로컬 푸드 먹기 등이었다.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가족과 함께하고 이웃의 존재를 깨닫는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뉴욕 한복판에서 환경을 위해 저자가 벌였던 프로젝트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시도해보면 어떨까? 환경을 위해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마음만 먹으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을 실천해보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친환경 #환경운동

교육과정(독서활동) 연계

[고등] 환경과 생태-환경보전-환경 보호 운동 '내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홍보 포스터 만들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영화 〈노 임팩트 맨 No Impact Man: The Documentary, 2009〉(92:00)

도서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박경화. 북센스. 2013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

— **최은주** 경기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 이본 쉬나드 글 | 라이팅하우스 | 2020 | 19,800원 | 424쪽

스포츠웨어회사 파타고니아의 회장 이본 쉬나드는 말한다.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 자신이 좋아하는 등산을 하면서 등반 장비를 설계하고 제조하게 된 그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한다.

그는 지구 안에 사는 한 생물체로 지구와의 운명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자 한다. 그런 자신의 소신을 사업 철학으로 삼고 직원들과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 사원 교육 자료를 만들다 보니 이렇게 한 권의 책이 탄생했다. 회사의 전 직원에게 우리의 사업 목표와 환경 윤리, 가치관을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철학(제품 디자인, 생산, 유통, 마케팅, 재무, 인사, 경영, 환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한다.

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라는 말 그대로 정말로 지구가 목적이고 사업은 지구의 환경을 위한 수단이구나!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터무니없을 것 같은 소신을 지키며 파타고니아 사업도 성공했다.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요즘, 저자 이본 쉬나드는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

#지구환경 #환경보호 #경영윤리

함께 볼 만한 콘텐츠

유튜브 〈7분 만에 알아보는 파타고니아에 대한 10가지 사실〉

유튜브 〈압도적 성공의 결정적 이유 '파타고니아'〉

학도협 창간호 환경 주제 추천 도서목록

초등

바다를 병들게 하는 플라스틱 | 시르시티 블롬, 예이르 빙 가브리엘센 글 | 생각하는 책상 | 2018 | 13,000원 | 60쪽

반쪽 섬 | 이새미 글 | 소원나무 | 2019 | 15,000원 | 56쪽 | 그림책

쓰레기의 행복한 여행 | 제라르 베르톨리니, 클레르 드라랑드 글 | 사계절 | 2007 | 10,500원 | 74쪽

쓰레기 대폭발: 쓰레기는 모두 어디로 갈까? | 클레이 이머 글 | 사파리 | 2020 | 13,000원 | 96쪽

돌아와, 귀신고래야! | 신정민 글 | 정지윤 그림 | 파란자전거 | 2020 | 12,900원 | 162쪽

코털인간 기운찬의 미세먼지 주의보 | 제성은 글 | 한호진 그림 | 크레용하우스 | 2018 | 11,000원 | 108쪽

그레타 툰베리가 외쳐요! | 자넷 윈터 글 | 꿈꾸는섬 | 2020 | 13,500원 | 40쪽

내일을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 | 시릴 디옹, 피에르 라비 글 | 한울림어린이 | 2018 | 15,000원 | 72쪽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다 | 게르다 라이트 글 | 위즈덤하우스 | 2019 | 14,000원 | 96쪽

동물도 권리가 있어요 | 권유경 글 | 김소희 그림 | 풀빛 | 2019 | 12,000원 | 116쪽

이건 쓰레기가 아니에요 | 이사벨 토마스 글 | 알렉스 패터슨 그림 | 머스트비 | 2019 | 12,000원 | 208쪽

플라스틱 섬 | 이명애 글 | 상출판사 | 2020 | 13,500원 | 40쪽 | 그림책

지구가 보내는 위험한 신호, 아픈 바다 이야기 | 박선희 글 | 박선하 그림 | 팜파스 | 2020 | 12,000원 | 161쪽

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 | 유미희 글 | 장선환 그림 | 초록개구리 | 2020 | 13500원 | 40쪽 | 그림책

중등

두 번째 지구는 없다 | 타일러 라쉬 글 | 알에이치코리아 | 2020 | 14,000원 | 208쪽

나무를 심은 사람 | 장 지오노 글 | 두레 | 2018 | 10,000원 | 104쪽

쓰레기책: 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 | 이동학 글 | 오도스 | 2020 | 16,900원 | 276쪽

왜 동물원이 문제일까?: 10대에게 들려주는 동물원 이야기 | 전채은 글 | 반니 | 2019 | 13,000원 | 192쪽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 | 환경과교육연구소, 권혜선, 김찬국, 안재정, 조성화 글 | 서해문집 | 2018 | 12,900원 | 224쪽

인류세: 인간의 시대 | 최평순, 다큐프라임 〈인류세〉 제작팀 글 | 해나무 | 2020 | 16,500원 | 324쪽

파란하늘 빨간지구 | 조천호 글 | 동아시아 | 2019 | 16,000원 | 292쪽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 | 산드라 크라우트바슐 글 | 양철북 | 2016 | 14,400원 | 320쪽

쓰레기 제로 라이프 | 실비 드룰랑 글 | 장 부르기뇽 그림 | 북스힐 | 2020 | 15,000원 | 260쪽

나의 비거니즘 만화 | 보선 글 | 푸른숲 | 2020 | 16,500원 | 440쪽 | 만화책

환경호르몬 어떻게 해결할까 박태균 글 | 동아엠앤비 | 2019 | 13,000원 | 216쪽

환경과 생태 쫌 아는 10대 라이프 | 최원형 글 | 풀빛 | 2019 | 13,000원 | 184쪽

우리만난 적 있나요? 이땅에 사는 야생동물의 수난과 구조 이야기 |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글 | 양철북 | 2018 | 14,000원 | 260쪽

아무튼, 비건 | 김한민 글 | 위고 | 2018 | 9,900원 | 174쪽

고등

목소리를 드릴게요: 정세랑 소설집 | 정세랑 글 | 아작 | 2020 | 14,800원 | 269쪽

한 그루 나무를 심으면 천 개의 복이 온다 | 오기출 글 | 사우 | 2017 | 15,000원 | 257쪽

1.5도의 미래 : 기후변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 | 윤신영 글 | 나무야 | 2018 | 13,000원 | 170쪽

연애 소설 읽는 노인 | 루이스 세풀베다 글 | 열린책들 | 2009 | 11,800원 | 190쪽

6도의 멸종: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 마크 라이너스 글 | 세종서적 | 2014 | 16,000원 | 374쪽

그린멘토 : 미래의 나를 만나다 | 에코주니어 글 | 뜨인돌 | 2014 | 15,000원 | 327쪽

지구온난화를 막는 50가지 방법 | Green Patriot Working Group 글 | 도요새 | 2009 | 10,000원 | 246쪽

위기의 지구, 물러설 곳 없는 인간 | 남성현 글 | 21세기북스 | 2020 | 16,000원 | 280쪽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 호프 자런 글 | 김영사 | 2020 | 15,500원 | 276쪽

오늘도, 녹색 이슈: 미세먼지에서 탈원전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환경 논쟁 | 김기범 글 | 다른 | 2018 | 13,500원 | 200쪽

누가 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가 | 마이클 만, 톰 톨스 글 | 미래인 | 2017 | 13,000원 | 244쪽

노 임팩트 맨 이슈 | 콜린 베번 글 | 북하우스 | 2010 | 15,000원 | 368쪽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 이본 쉬나드 글 | 라이팅하우스 | 2020 | 19,800원 | 424쪽

나만의 목록 만들기

주제

주제어(키워드)

순서	구분	자료명	비고

주제

주제어(키워드)

순서	구분	자료명	비고